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http://www.kihf.or.kr	**보도자료**	모든가족 행복파트너

보도일시	2026. 11. 27.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온라인 : 2026. 11. 26.(목) 오후 12:00 이후		총 6쪽
배포일자	2026. 11. 26.(목)	담당부서	가족사업지원부
담당부서장	오청미 (02-3479-7750)	담 당 자	이지영 (02-3479-7751)

한국건강가정진흥원, 「2026 지방정부·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」 '대상' 수상

- '1인가구 역량강화 사업 모형 개발'로 공공서비스·정책혁신 부문 최고 영예
- 5대 생활역량(관계·돌봄·소비·안전·주거)과 3단계 모듈 연계로 실질적 자립 지원
- 2027년부터 전국 가족센터에서 모든 1인가구 대상으로 사업 확대 추진

□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사장 박구연)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「2026 지방정부·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」에서 '공공서비스·정책혁신 부문 대상'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.

○ 이번 공모전은 AI·디지털 전환 및 지역소멸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한 우수 기관을 발굴·시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○ 한가원은 「1인가구 지원, 보호를 넘어 생활역량 강화로 - 가족센터 1인가구 생활역량강화 사업」 사례를 통해 1인가구의 다양한 생활 속 어려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,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□ 전체 가구의 약 36%를 차지하는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, 한가원은 1인가구가 스스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꾸려 나갈 수

있도록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개발했다.

○ 기존의 단발성·개별 프로그램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관계, 돌봄, 소비, 안전, 주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5대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·중장년·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모형을 마련했다.

○ 특히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는 단계(공통), 교육과 체험·실습을 통해 생활역량을 높이는 단계(맞춤),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단계(지속)로 구성하여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.

□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전광역시가족센터와 울산남구가족센터에서 142명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, 참여자의 일상생활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도 함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참여자 129명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를 비교한 결과, 종합 생활역량은 3.75점에서 4.16점으로, 지역사회 소속감은 3.34점에서 3.93점으로, 사회적 지지는 4.49점에서 4.86점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.

○ 또한 관계, 돌봄, 소비, 안전, 주거 등 5개 생활영역 모두에서 역량이 향상되었으며, 체험·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최고 4.96점(5점 만점)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.

○ 특히 참여자의 약 3분의 2가 기존에 가족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1인가구로 나타나, 가족센터가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다.

□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전국 가족센터에서 모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통해 청년부터 노년까지 1인가구가 자신의 생활 여건과 필요에 맞는 교육·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,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

동시에 지역사회 내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한가원은 표준 사업모형 보급과 사업지침 반영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전국 가족센터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통해 1인가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고, 혼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·예방적 가족서비스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.

□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“이번 대상 수상은 1인가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고, 스스로 건강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”라며,

○ “앞으로도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혼자 살아도 고립되지 않고,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26년 1인가구 역량강화 사업 개발 개요

□ 1인가구 역량강화 사업 개발

○ (근거) 국정과제 88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

○ (추진배경)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6%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, 생애주기별 특성과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반영한 보편적·예방적 지원 필요

○ (목적) 1인가구의 일상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 도모

○ (사업기간) 2026년 4월~10월 * 시범사업 운영기간: 6월~8월

○ (주요내용)

- 1인가구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모형 개발
- 관계·돌봄·소비·안전·주거 등 5대 생활영역 및 청년·중장년·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
- 생활 점검 및 상담(공통), 교육·체험·실습(맞춤), 일상생활 속 지속적인 실천 지원(지속)으로 구성된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
- 가족센터 2개소 시범운영을 통한 사업 효과성 검증 및 현장 적용성을 반영한 최종 사업모형 마련

□ 시범사업 주요 성과

○ (운영기관) 대전광역시가족센터, 울산남구가족센터

○ (운영기간) 2026년 6월~8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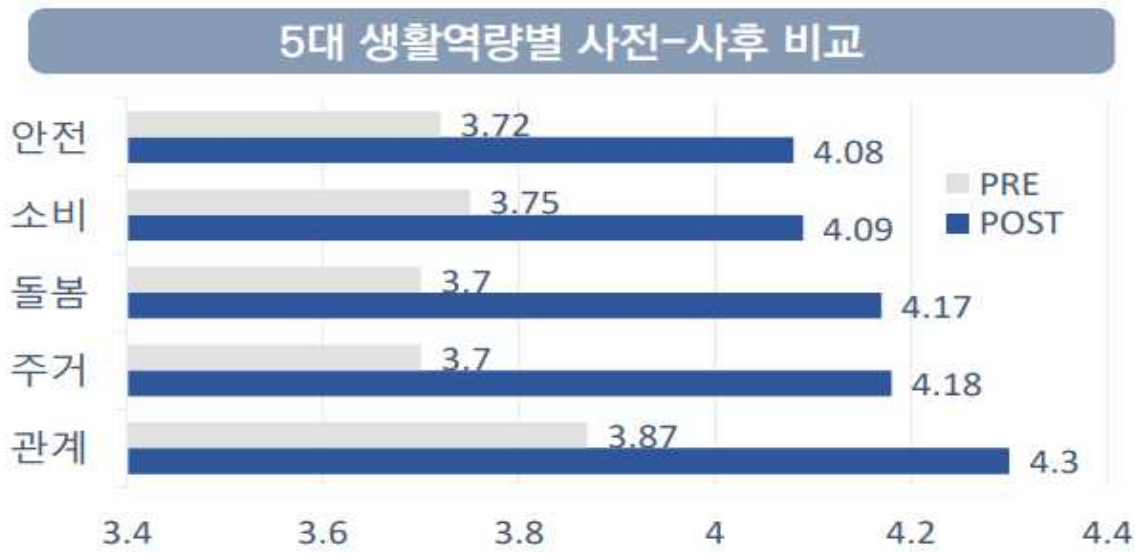
○ (참여인원) 총 142명(사전·사후 검사 완료자 129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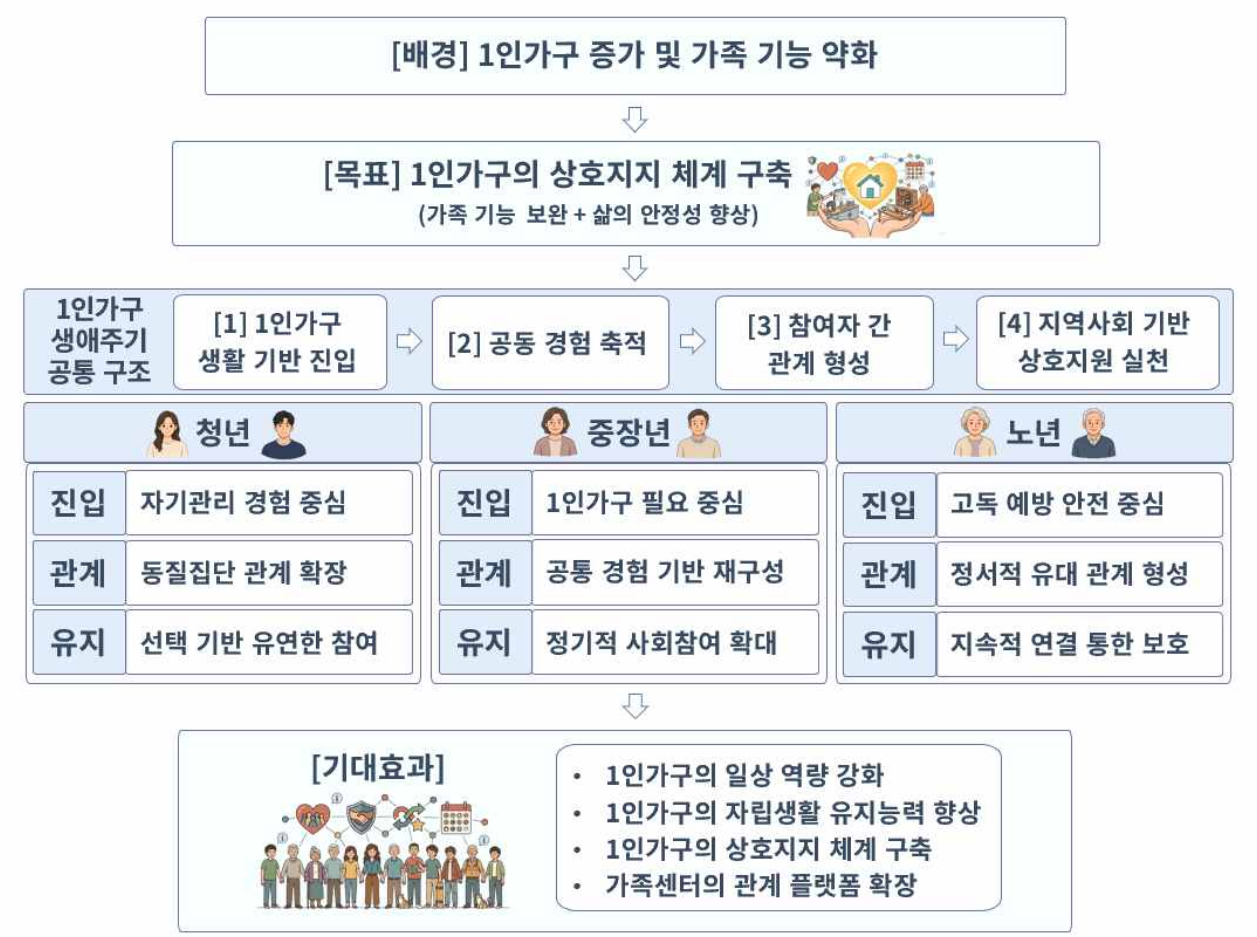
○ 주요 결과

- (생활역량 향상) 종합 생활역량 및 관계·돌봄·소비·안전·주거 등 5대 생활 영역별 역량 모두 향상
- (사회관계망 강화) 지역사회 소속감 및 사회적 지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 확인
- (서비스 만족도) 체험·실습형 맞춤 프로그램 최고 만족도 4.96점(5점 만점)
- (서비스 접근성 확대) 전체 참여자의 약 3분의 2가 기존 가족센터 미이용자로, 새로운 가족서비스 수요 발굴 및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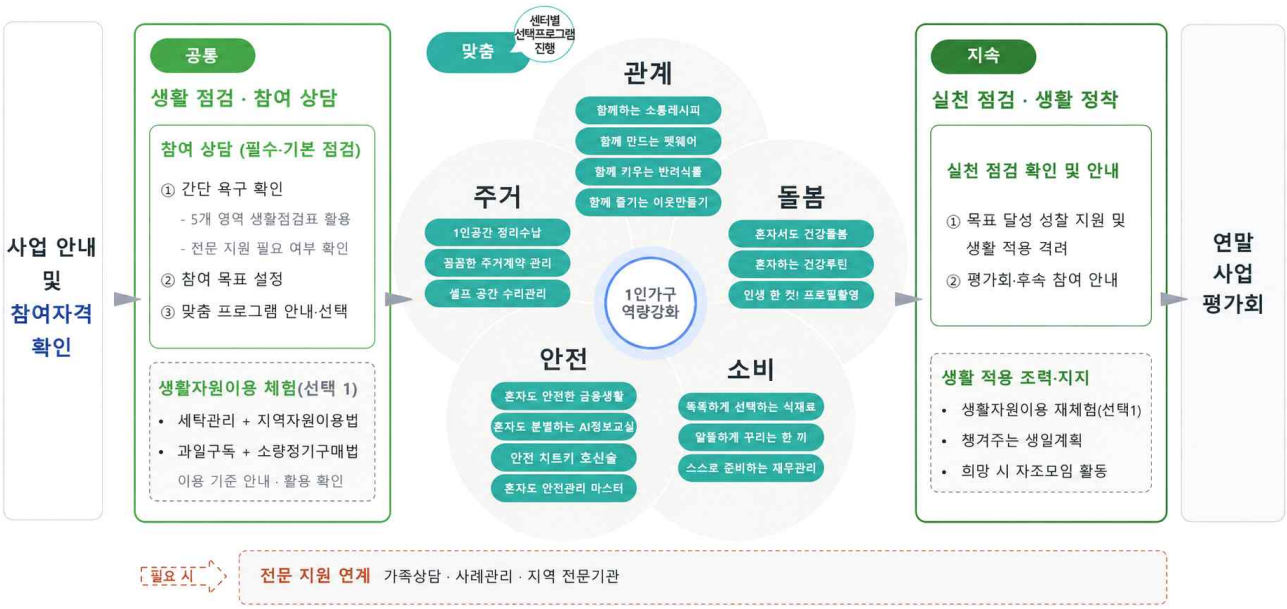
생활역량 종합	지역사회 소속감	사회적 지지
3.75점 → 4.16점	3.34점 → 3.93점	4.49점 → 4.86점
d=0.60	d=0.76	d=0.43

*5점 척도 / 모든 지표 p<.001





[1인가구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생애주기별 상호지지 체계 구축 모형]



[참여자 이용 중심 관점 1인가구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구조]